

“김대중·노무현 정부 있는 적통세력이 정권교체 책임자”

“호남의 가치·몫·미래 위해 안철수로 정권교체 이뤄져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대표

-매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인선에 갈등도 있었으나 곧바로 통합 선대위가 구성됐다. 후보와 당이 한 몸이 돼서 뛰는 역대 대선에서 가장 역량이 극대화된 선대위가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 전망 근거는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국민의 강력한 열망이 동력이다. 민주당과 문 후보는 그동안 촛불 민심, 국민의 목소리를 따랐다. 기득권 구조 철폐 등 사회대개혁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심은 확고하고 국민은 현명하다. 현재 문 후보의 지지율도 1위지만 결국 격차를 벌이면서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동안 언론이 우호적으로 다뤄주지 않았다. 그렇게 난타를 당하고도 1위를 지키며 2위 후보와 격차를 벌이고 있다. 문 후보 지지층은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결집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문 후보의 정력하고 투명한 삶의 궤적과 안보에 대한 투철한 소신 등이 본격적으로 조명되면서 지지율은 더욱 치솟을 것이다.



2위 후보와 지지율 격차 갈수록 커져
문재인, 국민과 시대의 선택 받을 것

집권당 당의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
호남이 정권교체의 길 터주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적폐 세력의 대리인이라고 규정짓는 바 있다. 지나치지 않은가.
 ▲제대로 된 정권교체나, 가짜 정권교체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폐 및 기득권 세력의 대리 선수라고 볼 수 있다. 안 후보의 집권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가짜 정권교체다.
 -그렇다면 안 후보 지지자들은 적폐 세력 대리 주자를 지지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안 후보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모호한 발언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수 후보가 몰락·분열, 한계성이 명확해지면 서 안 후보가 그 틈을 비집고 기득권 세력의 대리 선수 역할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보수 표심이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거꾸로 문 후보의 품이 그만큼 좁다는 것 아닌가.
 ▲경선 등을 거치면서 진보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문 후보와 민주당은 안보, 애국 등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이제 문 후보의 진심이 통하고 있다고 본다.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로 함께 가야한다. 다만 극우 진영 등 적폐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야권 주자다. 차별점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문 후보는 역사의 현장

에 몸으로 투쟁하고 눈물을 흘려온 사람이다. 반면 안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 있을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령에서 지우려 했다. 금태섭 의원이 이를 증언하기도 했다. 삶과 정치적 정체성이 확연하게 다르다. 특히, 정권교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적통 세력에서 나와야 한다. 시대적 아픔을 몸으로 체험한 자격 있는,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는 준비된 후보가 돼야 한다.
 -연립정부 구성은.
 ▲지금은 단언하기 어렵고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과는 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세력과는 할 수 없다.
 -문 후보가 승리한다면 청와대와 당의 관계 설정은.
 ▲당이 거수기는 절대 되지 않는다. 3기 민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의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 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들도 추천하겠다. 이미 당규 상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호남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다.
 ▲조심스럽다. 호남은 아픔을 넘어 국가가 위태로울 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광주정신, 호남민심을 믿고 더욱 낮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도 호남 민심은 대선 막판 진정한 정권교체의 길을 터주길 것이다. 호남 민심의 열망을 제대로 새겨서 잘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대표

-야권의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 됐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권교체 차이점은 무엇인가.
 ▲큰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정권교체는 과거로, 안철수 후보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미래로 간다는 것이다. 호남의 가치와 몫,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간 패권주의 정상을 위해서도 안 후보의 승리가 요구되고 있다.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치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호남 민심 흐름을 어떻게 보나.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3박4일동안 호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념, 지역, 세대 대결 구도가 무너지고 있다. 안철수 태풍이 불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기고, 부산·경남(PK)에서는 백중세다. 호남 민심은 끝까지 지켜보는 흐름이다. 하지만 결국 호남 민심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위해 안 후보를 밀어줄 것이다.
 -호남 판세를 전망한다면.
 ▲호남 민심의 기저에 있는 숨은 표심을 읽어야 한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6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4 정도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 막판에는 7:3 정도로 안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호남민심 결국 안철수 후보 지지할 것
선거 막판 새시대 염원 거대한 물결 일 것

‘문재인 거부감’ 전국적으로 확산
국민의당 호남 현안과 미래 위해 몸 던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양상이다.
 ▲7~8%의 지지율로 10개월을 견뎠다. 그정도로 강철수의 내공은 강하다. 이 정도로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가파른 지지율 상승으로 조정기가 왔다고 본다. 민주당 내거티브 공세와 각종 악재들이 겹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막판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연계점 다시 상승세를 타나.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는 압승을 할 것이고 문재인이 승리한다면 박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제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고무 지지반응이며 의미 있는 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정당, 소수 정당 후보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는데.
 ▲전혀적인 호남 무시다. 그러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구걸하고 있다. 과반 의석이 넘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 119석의 민주당은 가능한가. 소가 웃을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79석으로 집권, 국가부도위기를 극복했다. 캐나다 트뤼도 수상은 34석으로 출발 184석을 만들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집권은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연정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4당 체제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4당 체제에서

협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패권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정 운영이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통합과 협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4당 체제를 아우르며 갈 수 있는 후보다.
 -영남 보수 표심이 선거 막판 홍준표 후보에 결집할 수도 있다.
 ▲홍 후보는 한계가 분명하다. 건강한 보수 표심 결집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홍준표 후보 찍으면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공포증’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강고한 비문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 민심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당은 호남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당이다. 호남이 국민의당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고 버림받아서 안 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잔류 패권세력이 호남의 차별과 소외에 맞서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분노했다. 호남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몸을 던졌다. 금호타이어 사태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특별 성명을 냈다. 산업은행 총재, 부총재를 만나 호소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호남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표를 위한 립-서비스다. 속아선 안 된다. 호남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 간절히 호소드린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시

광주일보 65 since 1952

(2017. 4. 1. ~ 11. 11.)

매주 토요일에 만나요!

나주시티투어 문의

나라고속관광 062) 526-7700

나주시 061) 339-8721~4

▶ 운행 코스 : 2개 코스 격주 운행

나주시티투어 1코스

유스퀘어 건너편 (버스정류장) [09:30] 출발

나주역 [10:10]

빛가람 전망대 [11:10]

산림자연연구소 [11:50]

중식 [12:40]

음성권 [13:30]

금성관 / 목문화관 목사내아 [14:30] 도착

유스퀘어 [17:50]

나주시티투어 2코스

유스퀘어 건너편 (버스정류장) [09:30] 출발

나주역 [10:10]

볼화사 [11:40]

중식 [12:40]

음성권 [13:30]

금성관 / 목문화관 목사내아 [14:30] 도착

유스퀘어 [17:50]

• 시간은 출발시간입니다. • 본 상품은 경유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비용, 여행자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해설사 차량 등승 해설

나주시티투어 승차권 구매방법

● 나라고속 홈페이지에서 구입(www.narabus.co.kr) ● 이용요금 : 1매당 4,000원

※ 관광해설사 차량 등승 해설